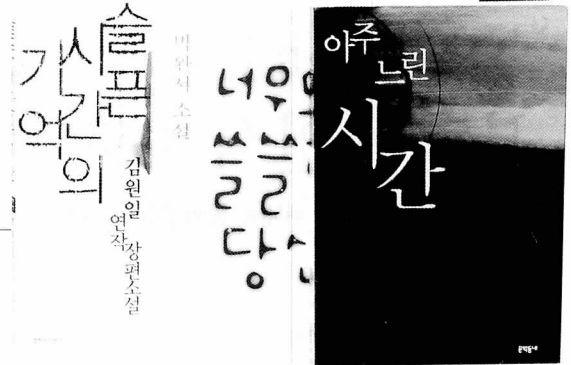


# 소멸의 운명 수락한 자들의 지혜와 통찰

문학작품에 형상화된 노년기의 삶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는 나이 칠십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천재 철학자인 그의 자살은 위대한 이성이 자발적으로 생을 마무리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과연 그럴까? 삶의 세속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웬지 불안한 해석 같다. 어차피 신성한 것들이 널린 세상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자. 들뢰즈가 늙는다는 것의 비참을 견디지 못한 게 아니냐고.

## 죽음 앞둔 육체에 대한 충격 묘사 두드러져

늙음의 비애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한계상황 앞에 선 존재의 무기력을 들 수 있

고, 사회학적으로는 경제력의 상실 등에 따른 소외감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인간은 몸으로 늙음을 느낄 것이다. 고약한 체취와 쪼그라든 몸매에서 자각은 시작된다. 물론 우리가 노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를 알 수 없다. 다만 노년기를 묘사한 문학작품을 통하면 간접적인 경험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다행히 최근 노년기를 다룬 자전적 소설이 여러권 출간됐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박완서, 창작과비평사), 《슬픈 시간의 추억》(김원일, 문학과지성사), 《아주 느린 시간》(최일남, 문학동네) 등이 그 면면이다.

이들을 일별해보면 노년기를 다룬 소설의 특징은 소재나 배경에서 먼저 드러난다. 아들의 졸업식장에서 어색하게 재회한 별거중인 노부부, 기껏 조카 결혼식에 내려가서 폐백도 못받는 처지가 된 할머니, 전부 양로원에 위탁됐으면서 아들자랑 딸자랑에 힘 빼는 노인들의 단조로운 일상 등이 주요한 소재다. 이런 소설을 읽는 첫 느낌은 충만함과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스산함이다. 노년기의 삶의 테두리는 더 이상 축소될 수 없을 만큼 오그라들어 있다.

물론 이것이 위축인지 삶의 알뜰한 경영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한가지 추가되는 게 있다. 바로 소멸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는 주인공들의 시선이다. 《슬픈 시간의 추억》에서는 깊게 패인 목의 주름살을 감추려고 두겹 세겹 분을 바르는 현역사가 나온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마른꽃〉에는 목욕중 알몸으로 전화를 받다가 거울에 비친 몸에 소스라치는 노부인이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다. 자신의 육체에 대한 괴로운 인식은 종종 타인에 대한 신경증으로 노출되기도 한다. 박완서의 〈너무나 쓸쓸한 당신〉에서 주인공이 남편의 왜소한 다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

## 한계를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쓸쓸한 생의 감동

따라서 세월이 생물학적인 늙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리라는 예상은 빛나간다. 인생의 쓴맛은 생의 종

점까지 따라붙는다. 한편 그 반대급부에서는 욕망이 솟아난다. 그 욕망은 그것을 절제하려는 의식과 동시에 생성되곤 하는데, 그래서 노년기를 다룬 이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수다스러운 내면과 절제된 대화를 번갈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욕망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소설을 이끌어나가는 동력이 된다.

최일남의 〈고도는 못 오신다네〉는 마로니에 공원에 앉아 두 노인의 대화를 엿듣는 주인공을 통해 욕망의 변증법적 소멸과정을 잘 보여준다. 두 노인은 어릴 적 친구인 다른 한 노인을 기다리며 추억의 시간들을 펼쳐놓고, 주인공은 이 이야기에 자신을 삼투시키며 기다림에 동참한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추억도 완성될 수 없다. 주인공의 내면 속에서 한참 달아올랐던 추억거리들도 펼쳐진 채 식어간다. 추억은 한 순간 끓어올랐다가도 기화하지 못하고 가라앉는, 노년기의 욕구에 대한 문학적 장치와 다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욕망의 억압을 노년기의 한계로 볼 순 없다. 〈마른꽃〉에서 우연히 만난 홀아비 노교수와 사랑에 빠진 주인공은 재혼을 권유하는 딸의 요청을 끝내 거부한다. 그녀에게 결혼은 “숨이 넘어갈 듯 격격대는 코골기와 한쪽 엉덩이를 들고 댕겨대는 방귀를 참아내는” 것이고 이는 “살을 쉬는 짐승의 시간을 겪어낸 사이”가 아니면 못할 짓이기 때문이다. 박완서는 그렇게 욕구를 거둬들이는 쓸쓸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쓸쓸함은 욕구의 억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욕구의 본질을 아는 데서 오는 쓸쓸함이기에 감동적이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서 별거 중인 남편의 모기 물린 상처투성이 다리를 보며, 감정에 벅차 울음을 터뜨리는 주인공의 모습은 아름답다. 상처를 만지는 그녀의 손길이 “오래된 가구를 어루만지듯”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걸어온 인생 전체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강성민기자